

글쓰기의 진정성과 텍스트 바로읽기

정운영형의 비평을 보는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

북거일

소설가

(1) 이 글은 줄져 「현실과 지향-한 자유주의자의 시각」을 평한 외우 정운영 형의 글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을 검증한다」에 대한 답이다. 정형의 글에 대해서는 이미 「한겨레신문」에서 답한 바 있으므로, 이 글은 쓰기가 적잖이 쑥스럽다.

그곳에서 나는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글은 그것이 어떤 사회에 끼칠 영향이 아니라 그것의 진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 지배계층의 이익을 수호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또한 될 염려가 있다는 주관적 판단은 자유주의를 주장한 글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내게는 그 문제가 책 한권의 내용을 넘어서 글쓰기 자체에까지 미치는 함의를 품은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가 자신의 글에 대한 비평들에 일일이 답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이곳에서는 뜻밖에 주어진 귀한 지면을 평가자 내 글에서 잘못 인용하거나 제대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독자들에게 되도록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바치기로 한다. 글이 저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앞을 닦기를 바라면서.

(2) “보수주의의 두 날개를 ‘합법’과 ‘개량’으로 친다면, 1987년의 6월항쟁을 성사시킨 원인이 보수주의적 개혁안이 지닌 최대공약수적 성격과 그 유용성에 있다는 설명은 그야말로 넌센스에 불과할 따름이요. 그 술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저항세력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살해한 것은 ‘불법’의 판결문이었지 결코 ‘준법’의 표창장이 아니었잖소?”라는 지적에 관하여 :

관련되는 부분들은 “암적적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사회의 거의 모든 세력들이 참여하므로, 자연히 그것의 목적들은 뚜렷하지만 목표들은 여럿이, 때로는 상충되는 것들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나 1987년의 시위들에서는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정당성이 없는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민주헌법’으로 바꾸고 그것에 따라 선거하여 정당한 정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적어도 그것이 최대공약수였고 다른 주장들은 부차적 중요성을 지녔거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와 “당시의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대신 ‘6.29선언’을 내도록 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을 지지하거나 소극적으로 비판한

다고 여겼던 중산층 시민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은 모든 혁명들에 공통된 특징이다. 변혁의 시도가 성공하려면, 사회의 중심세력이 가담해야 한다”이다.

(3) “북형은 아마도 마약복용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용기라고 믿는 모양인데, 그러한 믿음은 크게 잘못되었소.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고, 반대로 최저임금이 원만하게 책정되기 위해서는 마약 복용 따위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요”라는 지적에 관하여 :

관련되는 부분들은 “마약의 경우는 판단을 내리기가 훨씬 어렵다. 마약의 피해가 무척 크지만, 그것을 규제할 근거도 적고 규제하기도 어렵다. (i) 사람은, 적어도 문명인은 마약을 필요로 한다. 마약의 사용량은 문명의 발달 정도와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는 듯하다. (ii) 어느 사회에나(알콜, 니코틴, 카페인과 같은) 허용된 마약이 있다. 현재 마약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이들 세가지 마약들에서 나온다. (iii) 마약에 대한 의존은 근본적으로 증상이지 병 자체가 아니다... (iv) 마약의 사용과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마약사용을 줄이는 효과는 적으면서도 조직범죄의 창궐과 감시기구의 비대화 따위 큰 부작용들을 어김없이 불러온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의 마약사용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에 무게를 더해준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 마약 사용자들의 경제적·도덕적 파탄에서 나오는 갖가지 엄청난 사회적 문제들을 생각하면, 마약사용을 과연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기도록 허용할 때 나올 충격은 어떤 사회가 선뜻 받아들일려고 할까?”와 “(보수주의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의(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그것이) 규정된 최저임금으로 운영될 수 없는 한계기업들을 없애서 고용을 줄인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장 가난한 계층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에서 훨씬 더 비참한 실업자들로 만드므로, 그것은 바로 그것이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장 큰 해를 끼친다. 실제로 최저임금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온 미국에서 그것은 흑인 청소년

저자가 자신의 글에 대한 비평들에

일일이 답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거나,

나는 이 글을 평가자

원래의 내 글에서 잘못 인용하거나

제대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독자들에게 되도록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바치기로 한다. 글이 저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앞을 닦기를 바라면서.

년들과 백인 비숙련 노동자들이 겪는 높은 실업률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는 대신 ‘음소득세제’를, 즉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차등적으로 정부의 복지수당을 받도록 해서 자발적 실업을 줄이려는 제도를, 주장했다”이다.

(4) “자유방임을 지론으로 삼았던 고전적 자유주의조차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보수주의가 ‘검증을 통한 대안과의 비교’라든가 ‘자유방임의 한계’라든가 하는 등속의 너절한 변명으로 화장할 필요는 없을 듯하오. 가스실에서 500만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도 ‘반보수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내는 일이 과연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그 폭거를 강제로 지지해서는 안되고, 그들이 모두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아, 그게 보수주의의 한계야’라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아마도 그것으로 보수주의자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셈이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히틀러를 자살하도록 섭리했으니, 사회적 강제력의 발동보다 자유방임 정신에 따른 설득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의 우월성이 드디어 검증되었다고 박수라도 보낼 참이오?”라는 지적에 관하여 :

관련되는 부분은 “사회적 강제를 싫어하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높이는 프리드먼의 견해를 사무엘슨은 다음의 명제로 일반화시켰다. ‘만일 자유로운 사람이 당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여기는 어떤 행동(X)을 한다면, 그들이 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 원칙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자유로운 대화’에 의해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일뿐이다.’ 위의 명제의 X를 ‘자신의 미적 감각에 맞게 머리를 기르기’로 대체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

들은 그것에 동의할 것이다... 만일 X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마약을 즐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거리길 것이다. 프리드먼은 서슴없이 말한다.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마약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 사무엘슨은 이런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X를 500만 명의 적절히 특정화된 사람들을 가스로 죽이는 일’로 대체해보라. 이제 누가 그 주장에 동의할 것인가?’ 히틀러를 예로 든 것은 상당히 극단적이고 과연 히틀러의 행동을 개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자유방임주의에 어떤 한계가 있음을 위한 반론은 보여준다”이다.

(5) “노동조합은 노동공급의 제약 등 그 부작용이 크기에 이미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반환해야 한다든지, 형이 다른 지면을 통해 강조한 대목입니다만 육체 노동자는 동정과 도움의 대상일 뿐이지 가치창조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따위의 주장은 사실상 구사대의 정신교육 훈화와 별로 다를 바 없어 여러 모로 트집잡힐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에 관하여 :

노동조합에 관한 지적에 관련되는 부분은 200자 원고지 170매 가량 되는 「시장경제 속의 노동조합」이란 글의 모두이므로, 여기서 제대로 인용하기는 어렵다. 그 글의 논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 몇을 들면, “제목에서 ‘시장경제 속의’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노동조합은 이론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만 제대로 존립할 수 있는 기구다. 노동조합의 주요 기능이 사용자들에 대한 피고용자들의 협상력을 늘리는 것이므로, ‘노동의 지도’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명령 경제 체제에서는 그것이 차지하는 자리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와 “모든 사회들은 노동조합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크게 바뀌었다. 노동자들의 성격과 처지도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바뀐 사회상태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성격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 조망해 볼 때다”와 “현대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수행했던 기능들이 점점 크게 법에 의해 수행되며 노동자들의 임금도 경쟁이 지나치게 불완전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충분히 보장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는 점점 정당화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조합

자체는 아니라면, 단체협약은 급속히 시대착오적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어적으로, 그런 상황은 노동조합이 크게 성공한 데서 나온 것이다. 노동조합은 목표들을 거의 모두 이루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개선된 환경에 맞추어 스스로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자연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동조합은 그런 임무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졌던 특권들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반환해야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역사적 관행이지 선형적으로 옳다고 증명된 원칙은 아니다"와 "노동조합에게 주어졌던 독점적 권력을 사회가 회수하는' 문제는 내용과 절차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회수할 권력의 내용에 관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런 회수의 목적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절차에 관해서는 물론 노동자들의 권익이 일시적으로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대신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조처들이 먼저 나와야 하며 그런 조처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한도에서 노동조합의 권력을 회수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와 "그러나 시민들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하고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독점적 권력을 회수하는 일은' 많은 논란이 따르고 더딘 일일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은 파행적 성격을 지녔다. 한쪽으로는 아직도 독점적 지위를 지닌 기업들과 그들의 연합체들이 있어서 노동조합

의 활발한 움직임이 요청된다. 다른 쪽으로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올 문제들이 크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뚜렷해지고 있다"이다.

육체 노동자에 관한 지적은 「문예중앙」 1990년 여름호에 실린 '지식으로서의 문학'이란 글의 한 대목을 가리킨다. 해당되는 부분들은 "작가들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육체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자기비하적 태도는 분명히 근거가 없다. 모든 가치는 사회적 효용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효용의 기준은 그것에 대한 수요다. 시민들이 옷과 시집을 살 때, 두 상품 사이에 존재하는 효용의 차이는 양적 차이일 따름이고 그런 차이는 시민들이 치르는 값에 그대로 반영된다"와 그것에 대한 주석인 "그런 태도는 노동가치설의 유행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비록 노동가치설(정확히는 노동량가치설)이 원시적 이론이어서 주류 경제학에서 예전에 폐기되었지만, 그것을 논파하기는 그런 사정이 시사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분명히 적지 않은 진실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그것에 따라 판단한다. 더구나 가치에 관한 이론인 이상, 그것은 완전히 논파될 수 없다. 그러나 작가들의 자기비하적 태도에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는 데는 그것을 논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육체노동을 높이는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 된다. 노동가치설은 어떤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의 생산에 들어간 노동이라는 것을 뜻할 따름이다. 노동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누는

일은 생리적으로도 부질없다. 모든 일에는, 아무리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이라도,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대뇌도 육체의 한 부분이며 그 둘을 떼어 놓으려는 것은 생리적으로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사람을 다른 종들과 갈라놓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대뇌의 기능이 무척 크다는 사실일 터이므로, 정신노동으로 지칭되는 일이야말로 인간적이다. 전에는 가축이 했고 이제는 기계들이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아직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지, '진정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로 볼 일은 아니다. 소나 말이 더 잘 하고 점점 기계들이 대신하며 곧 로보트들이 대부분 할 일들에 무슨 위엄과 인간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들이 중요한 상태는 아직 인류문명이 근육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을 제대로 발명해내지 못했다는 사정에서 나왔으며 앞으로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더럽고 시끄러운 곳에서 단조롭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운한 시민들로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지, '진정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자들'이라는 우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신주의'라는 말이 유행하고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들을 그것으로 몰아붙이는 우리사회에서 주로 물질적 재화들을 생산하는 육체노동과 육체 노동자들을 그렇게 우상들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한 물신주의다"이다.

(6) "근본은 캐지 말고 현상만을 놓고 따지자는 주장은 결국 그 현상이 일부 선택된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편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반발을 자초할 따름이요"라는 지적에 관하여 :

관련되는 부분은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대할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현실에 의한 검증이 가능한 정리들이 드물고 계량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이다. 주류경제학이 계량적, 수학적 접근을 통해 이론 성과와 대비되면, 이 점은 아주 뚜렷해진다.(흔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규명한다는 설명을 앞세운다. 마치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적이 아닌 단순한' 현상인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는 물론 과학철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된다. 마르크스주의학자들 사이의 끊임없는 논쟁들이 과학철학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의 그것들이 흔히 과학적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되는 현상과 대조된다.) 이런 상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이 수학적으로 구성된 법칙들에 의한 설명에서 질적으로 기술된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의한 설명으로 퇴보했음을 뜻한다. 어떤 경제학자가 말한 것처럼, '자료를 잘 정리한 연구자라면 아주 평범한 전산기로 오후 한나절에 아인슈타인이 평생동안 검증할 수 있었던 것보다 많은 상관관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것은 점점 큰 문제가 될 것이다"이다.

(7) 학교에 막 들어간 어린 아이를 문앞에서 배웅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과연 내 글이 혼자서 제 앞을 닦을 수 있을까?"

좋은 글자심기 20년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책장을 함부로 넘기고
현명한 사람은
정성스레 넘깁니다.

좋은 글자심기 20년.

오늘도 우리는
한 권의 책을 위하여
한울, 한울 땀을 뜨는
장인의 정신으로
모두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
한자, 한자의 글자에
정성을 담고, 또 담아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걸음 앞서가는 조판전문업체

漢榮文化社